

“벌어진 치아, 부자연스럽고 발음에도 문제”

건강 바로 알기
치간이개(치아 벌여짐)

박태영 조선대치과병원 교수

환자가 치과 보존과를 찾아 호소하는 주증상 중에 ‘치아 사이가 벌어졌어요. 때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아래에 상관 없이 앞니 사이의 공간은 많은 환자에게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어서는 치아가 가지런했으니 나이가 들면서 공간이 생겼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처럼 치간이개(치아 사이 공간)는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법이 알려져 있다.

◇치간이개 벌여지는 이유=성인에게서 잘 나타나는 치간이개의 원인은 두꺼운 순소대, 치아의 선천적 결손, 왜소치 또는 기형치,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아의 병적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순소대는 잇몸 사이에서 잇몸 안쪽으로 존재하는 비탄성 섬유로, 혀를 뺀 상태에서 잇몸 안쪽으로 밀어보면 느낄 수 있다. 이 순소대가 과잉 발달하여 앞니 사이로 내려오면서 치아 사이를 붙지 못하게 하여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또는 잇몸 안쪽 중 송곳니 옆에 존재하는 작은 앞니가 태어나면서 없거나 작은 형태의 치아(왜소치), 기형치(정상적이지 않은 치아 형태)로 생기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젊을 때는 정상 치열을 가졌으나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벌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치주질환(잇몸병)이 생겨 치아를 잡아주는 조직인 잇몸뼈가 소실되거나 치아와 뼈 사이에서 치아를 잡아주는 치주인대의 염증으로 압력이 발생해 치아를 이동시키게 된다.

◇치간이개의 치료=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후 치료가 이루어진다. 순소대가 원인인 경우 순소대를 잘라 주는 것이 필요하며, 치주질환이 원인인 경우 잇몸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치간이개의 치료는 교정치료, 라미네이트 치료, 크라운 수복 치료, 복합레진을 이용한 치간이개의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대부분 치주질환으로 잇몸뼈 소실·치주인대 염증 발생 원인 심미회복이나·복합레진 해소나 등 환자에 적합한 치료법 선택 가장 중요

교정치료는 반영구적이고, 치아삭제가 필요 없고, 치아를 이상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이 매우 비싸며, 치료 후 유지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재발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라미네이트의 경우 심미적이고 크라운보다 치아삭제량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치아 배열이 불규칙하면 적용하기 어렵고 수리나 보수가 어려우며 가격이 비싼 단점이 존재한다.

크라운 수복의 경우 심미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색조의 조절이 가능하고, 치아의 형태를 이상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이 비싸고 치아를 많이 깎아야 하는 단점으로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복합레진을 이

용한 치간 이개 치료시 장점은 치아 삭제가 없고, 마취가 필요치 않고, 1회의 진료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파절 및 변색시 수리 및 재치료가 가능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치료하는 술자의 기술에 의존하며, 심미적인 유지 기간에 한계를 가져서 시간이 지나면 탈락되거나 접착 부위 변연부에 변색이 생기는 단점이 존재한다.

치간이개의 치료 목적은 가지런한 치아를 위한 심미회복과 더불어, 복이 나간다는 전통적인 인식으로 인한 콤플렉스 해소, 아름다운 미소의 회복 및 발음 교정 등에 있다. 앞니 치아 부분에 공간이 생겨 심미적이지 못할 때, 치간이개의 원인을 찾고 환자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치아 사이가 넓게 벌어져 웃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40대 환자를 박태영 교수가 치료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광주전남암센터, 초등생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

광주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석모)가 오는 30일까지 광주·전남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국민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암 예방의 중요성과 ‘국민 암예방수칙’ 10가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응모요령은 광주전남지역암센터 홈페이지(http://www.cnucancercenter.com)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작품 규격은 8절지(스케치북 크기)나 4절지(스케치북 2배 크기)로 한정된다. 당선작은 내달 발표하며, 대상작 1편 30만원 등 총 6편을 뽑아 상금을 시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국민 암예방수칙’ 10가지는 금연하기, 건강체중 유지, 균형잡힌 식사, B형간염 예방접종 받기, 짜거나 탄 음식 먹지 않기, 안전한 성생활,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암 조기검진받기 등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선아트갤러리, 유희작품 3점 화순전남대병원에 기증

선아트갤러리(대표 최진원) 소속 회원작가들이 최근 유희작품 3점을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에 기증했다.

기증작품은 박광출 작가가 숲속 풍경을 담은 ‘숲, 아침의 시작’과 남이섬의 은행나무길을 그린 ‘남이섬’, 선영진 작가의 ‘숫대’ 등이다.

최진원 대표는 “자연 속의 첨단요리를 펼치는 병원, ‘행림춘만’이라는 고사처럼 인술을 펼치는 병원에 걸맞는 그림과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를 각각 담았다”고 기증작품 선택의 기준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병원내 2층 로비에서 유희전시회를 열고 있다. ‘자연과 풍경, 힐링을 선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당초 1개월간 열릴 예정이던 전시기간이 내달 3일까지로 대폭 연장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취임 6개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정중훈 조선대학교병원장

“코로나 거점병원 비상 진료·경영체제 유지 지역민·교직원 안전한 건강관리에 최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거점 병원으로서 결코 방심하지 않고, 현재의 비상 진료 및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정중훈 조선대병원장은 “그 동안 다양하고 긴급한 현안이 있었지만 취임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모든 시스템을 코로나19 극복에 맞췄다”면서 “지난 2,3개월간은 진료는 물론 경영 자체도 어려웠지만 6월 들어서는 거의 정상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조선대병원 ‘코로나19’에 맞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역민의 평가가 많습니다.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광주는 물론 전국 여러 의료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전남 지역에서의 확진 환자 발생, 곧이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확산으로 해당 지역 환자 치료와 함께 간호사 2명이 동산대병원으로 근무 지원을 나가는 등 조선대병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출입객을 대상으로 문진표 작성과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출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모두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병원내 감염 ‘0’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선정된 조선대병원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대병원의 존재 가치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대한 준비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현지조사를 통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내년이면 개원 50주년을 맞는 명실상부 지역 최고 사립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동안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병원시스템 개혁을 통해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향후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해당 지역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과의 적극적인 환자 의뢰 및 회송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가 아닌 중증 환자 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최신 의료장비 확충과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 협력



병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위급환자가 방문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출입구 분리 등을 통해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병원 경영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의료업계는 어느 곳이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거 2015년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내 감염 우려에 따른 환자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만약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파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사립대병원은 약 5~20% 가까운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일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중의 수급 극대화를 위한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로봇수술기기와 같은 최신 의료기기를 확충하고, 무엇보다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 유입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또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병원 공간 조정’ 등을 통해 병원 경영에 내실화를 다지고 수익 극대화를 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병원 경영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원 환경 및 시설 개선, 우수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